

# 현대중국어 相 표지 了의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한 대조 분석\*

장 호 득  
(단국대학교)

## I. 머리말

본고는 현대중국어 상(相, aspects) 표지 ‘了’ 통사구조와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 통사구조를 대조분석하여 그 같음과 다름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descriptive adequacy)을 확보하고, 이를 설명적 타당성(explanatory adequacy)으로 이끌어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를 한국인 CSL 교육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결과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언어는 두뇌세계를 구현해내는 도구이다. 이 두뇌세계는 현실세계가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두뇌세계이든 현실세계이든 그 내용의 핵심은 시간과 공간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어우러진 시공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세계의 ‘世’, 즉 시간은 술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세계의 ‘界’, 즉 공간은 주어 및 목적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시간이 언어구조로 형식화될 때는 다시 TAM으로 세분된다. ‘T’는

---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2013) 논문을 심사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Tense’로 시제를 말하며, ‘A’는 ‘Aspect’로 상을 말하며, ‘M’은 ‘Modality’로 양상을 가리킨다. 본고에서 상 표지인 ‘了’와 관련된 통사구조의 중한 대조분석이긴 하지만 이 상은 시제 및 양상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논지 전개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같이 포함시켜 분석하기로 하겠다.

## II. ‘X+了’ 관련 구조와 了의 의미소

현대중국어에서 상 표지로 쓰이는 조사는 ‘了’, ‘着’, ‘過’ 세 개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주장하고 있으며 완전히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술어 바로 뒤에 오는 ‘了’의 용법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시(時)’로 보는 주장과 ‘상(相)’으로 보는 주장으로 나뉜다. ‘시(時, Tense)’로 보는 주장은 A. A. 龍果夫(1958)가 있으며, 대부분 학자들은 ‘상(相, Aspect)’으로 본다. 그러나 상으로 보는 학자들도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완료’ 또는 ‘완성’과 ‘실현’으로 보는 관점이다. 전자는 呂叔湘(1980), Charles N. Li & Sandra A. Thompson(1981) 등이 있고, 후자는 劉月華(1983) 등이 있다. 그 외에 ‘완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완료’의 의미로 쓰인 완성이 아니라 ‘시간의 공간화’로 설명하여 ‘실현’과 비슷한 견해를 주장한 장호득(2000) 등이 있다.

‘시간의 공간화’를 주장한 장호득(2000)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본고는 술어 뒤에 오는 ‘了’는 현대중국어에서 ‘상’의 용법으로 쓰이고 있으며 시제나 양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상 표지 ‘了’, ‘着’, ‘過’의 기능은 다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了’와 ‘過’는 완료상(perfective aspect)을, ‘着’는 미완료상(imperfective aspect)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본고의 기본 출발점이다.<sup>1)</sup>

1) Bernard Comrie(1976), 『Aspect』, 북경: 북경대학출판사, p. 25.

Table 1. Classification of aspectual oppositions

술어 뒤에 상 표지 ‘了’가 와서 생성되는 통사구조는 크게 ‘X+了+Ø’, ‘X+了+Y’, ‘X+了+X’로 나눌 수 있다.

‘X+了+Ø’ 구조에 해당하는 예문은 아래와 같다.

(1) 她病了, 在家裡休息。(그녀는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다.)

(1)은 ‘病’이 자동사로 쓰여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고 있으며 ‘了’는 상의 범주 ‘완성’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뒤에 ‘在家裡休息’가 와서 병이 난 뒤에 그 결과로서 이어지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了’는 ‘아프다’는 동작이 성사(成事)된 후 후속 동작으로 ‘쉬다’라는 단계를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의 ‘了’는 상의 범주인 ‘완성’ 가운데 ‘성사(成事)’라는 하위 개념을 설정하여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의 후반부가 없는 “她病了”는 앞뒤에 어떤 특정한 문맥이나 말하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말이 아직 끝났다고 볼 수 없는 뜬금없는 어색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술어 뒤에 상 표지 ‘了’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특정 문맥이나 말하는 상황이 주어져야 한다.<sup>2)</sup>

‘X+了+Y’ 구조는 다시 ‘X+了+Y+Ø’과 ‘X+了+Y+了’로 나눌 수 있는데 예문은 아래와 같다.

(2) 學了漢語(중국어를 배웠다)

(3) 學了漢語了(중국어를 배웠다 / 중국어를 배웠는데 …)

(2)와 (3)은 술어 뒤에 목적어가 온 구조로 (2)는 술어 뒤에 ‘了’가 오고 다시 그 뒤에 목적어가 온 구조이다. (3)은 술어 뒤에 상 표지 ‘了’가 오고 그 뒤에 목적어가 오고 다시 그 뒤에 시태조사 ‘了’가 온 구조이다. (2)는 말

Perfective

Imperfective

Habitual

Continuous

Nonprogressive

Progressive

2) 이때의 ‘了’는 상의 표지와 어기조사를 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는 상황이나 문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모국어 화자에게는 뜬금없는 말이거나 아직 끝나지 않은 문장으로 느껴 후속되는 말을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 (3)은 ‘了<sub>2</sub>’의 영향으로 문장이 끝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의미상으로는 ‘배우다[學]’라는 동작이 성사되어 다음 동작으로 연결될 상황과 동작이 성사되어 그 자체로 완료되는 상황이 다 설정될 수 있다. 이때는 그 이후에 오는 말에 따라 그 상의 범주를 결정하게 되는데 뒤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다루기로 하겠다.

‘X+了+X’ 구조는 다시 ‘X<sub>i</sub>+了…X<sub>j</sub>’와 ‘X<sub>i</sub>+了+X<sub>i</sub>’로 나눌 수 있는데 예문은 아래와 같다.

(4) 吃了飯就走。(밥 먹고 바로 갔다.)

(5) 吃了吃。(먹어 보았다.)

(6) 我跑到堂屋找了點芝麻吃了吃, 果然胃不疼了。(CCL)<sup>3)</sup> (난 집안으로 달려 들어가 깨를 조금 찾아 먹어 보니 과연 위가 아프지 않았다.)

(4)는 상 표지 ‘了’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술어가 앞뒤에 반복되는 구문이고, (5)는 상 표지 ‘了’를 사이에 두고 같은 술어가 앞뒤에 반복되는 구문이다. 전자는 ‘X<sub>i</sub>+了’와 ‘X<sub>j</sub>’ 사이에 일반적으로 다른 요소가 오는 ‘X<sub>i</sub>+了…X<sub>j</sub>’ 구조이며, 후자는 앞의 ‘X<sub>i</sub>+了’와 뒤의 ‘X<sub>i</sub>’ 사이에 다른 요소가 오지 않는 ‘X<sub>i</sub>+了+X<sub>i</sub>’ 구조이다. (4)는 ‘먹다’는 동작을 완성하고 다음으로 ‘가다’라는 동작이 바로 이어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了’가 ‘완성’의 상 표지를 나타내긴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결된 ‘완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一段落’, ‘동작의 成事’를 나타내며 그러므로 그 뒤에 다른 동작이 이어짐을 예견해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5)와 (6)은 ‘了’를 중심으로 앞뒤에 같은 동작 ‘먹다’를 한 번 더 반복해줌으로써 ‘시도하다’, ‘-어 보다’<sup>4)</sup>의 의미

3) ‘ccl’은 ‘CCL語料庫及其檢索系統’(Center for Chinese Linguistics PKU)을 가리킨다. 여기에 나오는 말뭉치는 오-탈자, 예의 비문 가능성 등도 있으나 본고에서 예로 채택한 것은 이런 검증을 거쳤음을 밝혀둔다.

4)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보다’를 보조동사로 보아 “(동사 뒤에서

범주를 나타내고 있다. 동작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동작동사의 특징인데, 여기서는 한 번만 반복하면서 동시에 상 표시 ‘了’를 중간에 배치함으로써 ‘반복상(iterative aspect)’과 ‘동작의 성사’를 나타내는 상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고는 현대중국어 술어 바로 뒤에 오는 상 표시 ‘了’의 의미 범주를 ‘완성상(perfective aspect)’의 하위 범주인 ‘성사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논어』에 보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나온다.

子聞之，曰：“成事不說，遂事不諫，既往不咎。”(공자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으며, 마친 일은 간하지 않으며,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는다.”)(『論語 八佾』)<sup>5)</sup>

필자는 『논어』의 이 문장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것을 현재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성사시키다’라는 개념에 대입시켜 ‘일을 성사시킨 후에도 다른 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로 ‘성사상’을 설정하였다.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에서 ‘끝은 바로 시작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므로 동작의 완성은 새로운 시작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사상’은 ‘동작이 一段落되면서 새로운 동작에 대해 열려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성사(成事)’에 대한 풀이는 “일을 이룸. 또는 일이 이루어짐.”이다. 예를 들어 ‘계약이 성사되다’의 ‘성사’의 의미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나 이행이 담보되어 있으며, ‘이 혼사가 성사되다’에서 ‘성사’의 의미에도 ‘결혼’이라는 후속적인 행사가 예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成事’는 완전히 끝난 완결, 완료의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담보로 하는 일단락(一段落)<sup>6)</sup>된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동작 또는 행위의 순서를 염두(念頭)에 두고 있다. 이런

‘-어 보다’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말.”로 풀이하고 있다.

5) 張皓得, 『『논어』와 함께 배우는 고대중국어문법』, 용인, 교학출판사, 2012, pp.78-79.

6)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일의 한 단계를 끝냄.”으로 풀이하고 있다.

‘성사상’은 물론 문맥이나 말하는 상황에 따라 문장이 끝맺음을 한다면 ‘동작이 완료됨’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상으로 본고는 현대중국어 상 표시 ‘了’를 ‘완성상(perfective aspect)’의 하위 범주인 ‘成事相(wrap-up aspect)’으로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겠다.<sup>7)</sup>

### III. ‘X+了+Y’<sup>8)</sup> 관련 구조 및 了 의미소 대조 분석

관련 구조 및 了 의미소 대조 분석에 앞서 의미 전달과 통사구조의 관계에 대한 본고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말은 현실세계, 경험세계, 객관세계가 아닌 ‘頭腦世界’를 ‘말소리’라는 수단으로 송수신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뇌세계란 구체적으로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두뇌에서 재구성한 ‘時空世界’를 말한다. 世界, 時空, 宇宙라는 낱말은 모두 時間과 空間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卅는 ‘十’이 세 개 결합하여 된 글자로 ‘三十’의 뜻이며 이것은 30년을 한 세대로 한다는 시간 개념을 나타낸다. 畺은 ‘田’을 의미로 삼고 ‘介’를 소리로 삼아 형성된 글자로 ‘밭의 경계를 나타내는 공간적 개념’을 뜻한다. 또 시공의 ‘時’와 우주의 ‘宙’는 시간 개념을, 시공의 ‘空’과 우주의 ‘宇’는 공간 개념을 나타낸다.<sup>9)</sup>

7) Bernard Comrie(1976)은 상을 완료상(perfective aspect)와 미완료상(imperfective)으로 나누면서 미완료상의 하위 범주로 습관상(habitual aspect), 지속상(continuous aspect), 비진행상(nonprogressive aspect), 진행상(progressive aspect) 등으로 나누고 있지만 완료상에는 하위범주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본고는 Bernard Comrie의 완료상에 해당하는 상위범주를 ‘완성상’으로 하고 그 하위범주로 ‘완료상’과 ‘성사상’을 설정하고자 한다.

8) ‘X’는 ‘世界’의 시간 개념인 ‘世’의 개념으로 쓰이는 역할체를 말한다. ‘Y’는 ‘X’와 다른 역할체로 ‘世界’의 공간 개념인 ‘界’의 개념으로 쓰이는 역할체를 가리킨다. 즉, 전자는 전통문법의 술어, 후자는 전통문법의 목적어, 생성문법의 내부논항과 비슷한 언어단위를 가리킨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후의 연구에서 밝히기로 한다.

9) ‘宇宙’를 영어로 표현할 때 ‘space’라고도 한다. 이것은 서구인들이 우주를 ‘하나의 空間’으로 인식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맹자는 일찍이 인간을 小宇宙로 보고 ‘萬物皆備於我.(삼라만상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정보세계를 핵심 언어구조로 형식화하면 ‘공간[주어]+시간[술어]+공간[목적어]’로 구조화할 수 있다. 여기에 부차적인 역할체를 보태면 공간 개념을 보완해주는 관형어[定語]와 시간 개념을 보완해주는 부사어[狀語]와 보어[補語]가 있다. 현대중국어 구조에서 공간 개념을 보완해주는 역할체는 주어와 목적어 앞에 위치하며, 시간 개념을 보완해주는 역할체 가운데 부사어는 앞에서, 보어는 뒤에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

### 1. ‘X+了+Y’ 구조 대조 분석

본고에서 말하는 ‘X+了+Y’ 구조는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역할체 술어 뒤에 ‘了’가 오고 그 뒤에 공간 개념을 나타내는 다른 성질의 역할체, 즉 목적어가 오는 구조이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구성된 구조는 문장의 완성도에 있어서 뭔가 빠진 듯한 부족한 느낌을 주어 청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기대하는 상황을 만든다. 그러므로 이 구조는 이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완책을 강구하여 구조를 완성한다. 아래 예를 보자.

- (7) 他天還沒亮的時候就吃了飯。(CCL)(그는 날이 아직 밝지도 않았을 때 바로 밥을 먹었다.)<sup>10)</sup>  
 (8) 下吾我去逛了書店, 傍晚我的一家快餐店吃了飯。(CCL)(오후에 나는 서점에 가서 구경하고, 저녁 무렵에 난 패스트푸드점에서 밥을 먹었다.)

(7)은 ‘他吃了飯’에서 확장된 구조로 술어 앞에 ‘天還沒亮的時候’와 ‘就’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전달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다. 특히, 시간 개념을 표현하는 역할체인 술어 앞에 시점과 시간을 표시하는 부사어를 위치시켜 시간 개념을 묶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시간의 열림 특성을

이 주제 관련 자세한 논의는 차후 따로 논문을 집필하여 밝히기로 하겠다.

10) 본 논문의 한국어 번역은 중한 대조 분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직역을 하였다. 한국어로는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논문의 논지 전개를 위해 중국어 통사구조를 살려 번역한 것임을 밝힌다.

끝맺게 하여 ‘吃了飯’이 가져다주는 정보전달의 미진함을 보완해주고 있다. (8)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吃了飯’이 주는 정보전달의 미진함을 ‘傍晚’이라는 시점의 시간적 제약과 ‘在一家快餐店’라는 공간적 제약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전달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다.

(7), (8)은 모두 정보전달의 완성도가 높은 하나의 완전한 단문으로 문장의 끝맺음이 있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한국어로 문장의 끝맺음을 표시하는 온점이 있는 ‘먹었다.’로 번역할 수 있다. 이때 ‘了’는 어미 ‘-았-’으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한국어에서는 시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표지이다.<sup>11)</sup> 남기십(1993:302-311)은 시제를 발화시를 중심으로 앞뒤의 시간을 제한하는 문법범주로 보면서 한국어의 시제를 현재시제, 과거시제, 미래시제로 나누고 있다. 그(1993:306)는 또 과거시제를 사건시가 발화시에 선행하는 시간표현으로 규정하면서 그 형태는 선어말어미 ‘-았-’ 등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았-’은 양성모음 ‘ㅏ, ㅑ’로 된 어간 뒤에서는 ‘-았-’으로 되고 어간 ‘하-’의 뒤에서는 ‘-였-’으로 교체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현대중국어 ‘X+了+Y’ 구조 속의 ‘了’는 문장이 끝맺음을 했을 때는 한국어로 과거시제의 ‘-았-’으로 대응됨을 알 수 있다.

(9) 後來趙恒安院長和李老師、陳老師請我吃了飯。(CCL)(그 후 趙恒安 원장님, 이 선생님, 진 선생님은 나에게 밥을 사 주셨다.)

(10) 青苗點點頭，又端起飯碗，高高興興吃了飯。(CCL)(青苗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밥공기를 들고 기쁘게 밥을 먹었다.)

(9)-(10)은 부사어를 시간적 제약이나 공간적 제약이 아닌 논리적인 제약의 역할체로 삼아 술어 앞에 둔 구조이다. (9)는 물론 ‘後來’라는 시간적 제약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 (9)는 중국어의 통사구조를 살려 의미를 표현한

11) ‘았’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가 아닌 용언의 어간에 붙어))((다른 어미 앞에 붙어)) (1)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2)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 (3)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이는 어미.”



다면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나를 칭하여 밥을 그냥 먹게 해주었다’는 뜻으로 ‘了’는 ‘-었-’으로 번역된다. (10)은 시간적 제약이 숨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상황을 표시하는 ‘(點點頭, 又端起飯碗, 高高興興)’이 논리적인 제약 역할을 하여 언어로 형식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예도 한국어로 ‘밥을 먹었다’는 뜻으로 번역되어 ‘了’는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었-’으로 대응된다.

- (11) 他吃了兩小時的飯。(CCL)(그는 두 시간의 밥을 먹었다. 그는 밥을 두 시간 동안 먹었다.)  
 (12) 那是1994年8月26日中吾, 孔書記陪我吃了最後一頓飯。(CCL)(그 때는 1994년 8월 26일 낮이었는데, 孔 비서는 옆에서 나와 같이 마지막 밥을 먹었다.)

(11)은 ‘X+了+Y’ 통사구조 ‘吃了飯’에서 공간 개념을 담당하는 ‘Y’ 앞에 ‘兩小時的’라는 시간적 제약을 둔 구조이다. (12)는 ‘X+了+Y’ 통사구조 ‘吃了飯’에서 공간 개념을 담당하는 ‘Y’ 앞에 ‘最後一頓’라는 시간 및 수량적 제약<sup>12)</sup>을 둔 구조이다. 즉, (11)과 (12) 모두 ‘Y’에 부가적인 성분을 덧붙여 정보전달의 완성도를 높여 문장을 끝맺고 있는 구조이다. 이 경우 모두 한국어로 ‘먹었다’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렇게 ‘X+了+Y’ 통사구조에서 문장이 끝맺음을 하는 경우 중국어의 ‘了’는 한국어로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었-’으로 대응됨을 알 수 있다.

- (13) 這天, 他一口氣吃了3盒飯。(이날 그는 단숨에 세 반합의 밥을 먹었다. )

12) 이런 수량적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Charles N. Li and Sandra A. Thompson(1981/1989:186)도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A. A Quantified Event: An event can be viewed as bounded when temporal, spatial, or conceptual limits are placed on it. What this means grammatically is that a verb typically will occur with -le if the event signaled by the verb is limited by overt phrases naming the extent to which that event occurred, the amount of time it took, or the number of times it happened.”

(14) 春初, 一個美麗的傍晚, 我同他們一起吃了晚飯。(초봄의 어느 아름다운 저녁에 나는 그들과 같이 저녁을 먹었다. )

(13)은 술어 앞에 ‘這天’이라는 시간적 제약과 ‘一口氣’라는 상황 또는 논리적 제약, 술어 뒤에 ‘3盒’라는 수량적 제약을 모두 갖추고서 정보전달의 완성도와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는 구조이다. (14)는 술어 앞에 ‘春初, 一個美麗的傍晚’라는 시간적 제약과 ‘同他們一起’라는 상황 또는 논리적 제약 그리고 술어 뒤에 ‘晚(飯)’라는 명시적 제약을 모두 갖추고서 정보전달의 완성도와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는 구조이다. (13)과 (14)는 ‘X’와 ‘Y’에 모두 정보전달의 의미를 수렴함으로써 열림 속성을 지닌 술어 역할체의 정보를 닫아줌으로써 정보전달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면서 문장을 끝맺고 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두 한국어로 ‘먹었다’로 번역되어 ‘了’가 한국어로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었-’으로 대응되고 있다.

이상에서 본고는 ‘X+了+Y’ 통사구조에 나타나는 ‘了’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의미 범주를 살펴보았다. 현대중국어의 ‘X+了+Y’ 구조는 ‘X’ 또는 ‘Y’에 부속 역할체를 더하여 정보를 구체화하여 제약하고 수렴할 수 있을 때 문장의 완성도와 정보전달의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sup>13)</sup> 이런 경우 문장의 끝맺음을 하면서 완성되는데 여기에서 출현하는 ‘了’는 문법범주 상의 표지로서 ‘完成相’의 하위범주인 ‘成事相(wrap-up aspect)’을 표시한다. 이에 對當한 한국어는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었-’이다. 이렇게 볼 때 현대중국어 ‘X+了+Y’ 통사구조에서 ‘了’는 상의 표지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시제표지로 대당함을 알 수 있다.

## 2. ‘X+了+Y+了’ 구조 대조 분석

다음으로 앞에서 살펴본 ‘X+了+Y’ 구조 뒤에 시대조사 ‘了’가 추가된 ‘X+了+Y+了’에 대해 살펴보겠다.<sup>14)</sup>

13) 이것은 말이 말소리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뇌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귀의 기능은 크게 청각기능과 평형기능을 담당한다. 이 청각기능이 말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평형기능은 언어구조의 균형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 (15) 他們吃了飯了。(그들은 밥을 먹었다.)  
 (16) 這本書我看了三天了。(이 책 나 3일 동안 봤어.)

(15)는 ‘X+了+Y’ 뒤에 시태조사 ‘了’가 추가된 구조이고, (16)은 ‘X+了+Y’에 시태조사 ‘了’가 추가된 구조이다.<sup>15)</sup> ‘了’는 일반적으로 ‘상황의 변화’ 또는 ‘사태의 변화’로 보는데, 본고도 이런 관점으로 분석하면서 동시에 ‘발화시 화자의 사건시와 참고시에 대한 상황 판단의 양태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본다. (15)와 (16)은 ‘了2’를 출현시켜 화자가 정보전달을 완료했다는 표지로 삼고 있는 구문이다. 이럴 경우 현대중국어의 ‘了1’은 ‘완성상’의 ‘성사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에 대당한 한국어는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었-’으로, (15)는 ‘먹+었-’으로 번역되고, (16)은 ‘보+았-’으로 번역된다.

이런 구조는 동사의 성질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17) 他畢業了三年了。(房玉清2001:264)(그는 졸업한 지 3년 되었어.)  
 (18) 他學習了三年了。(房玉清2001:264)(그는 3년 동안 배웠어. / 그는 배운 지 3년 되었어.)

房玉清(2001:264)은 (17)의 ‘畢業’를 완료형 동사로 보면서 3년을 ‘동작이 끝난 뒤 발화시까지 지난 시간’을 표시한다고 하였으며, (18)의 ‘學習’는 지속형 동사로 ‘3년 전에 배우기 시작하여 발화시까지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다고 하였다.<sup>16)</sup> 그러나 본고는 이와 관점을 달리한다. 동사의 의미적 특성과 상관없이 ‘了1’은 상의 표지로서 ‘완성상’의 하위범주인 ‘성사상’으로 보아 동작이 일단락된 것으로 개괄하면 더 일반화된 범주로 아우를

14) 이렇게 ‘了’가 두 개 출현할 때, 논지 전개상 필요한 경우 본고는 술어에 붙는 ‘了’를 ‘了1’로, 문미에 오는 ‘了’를 ‘了2’로 부르기로 하겠다.  
 15) ‘Y’의 성격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한다. 어떤 학자는 목적어 또는 특수목적어로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보어로 본다. 본고에서는 어떻게 보든 ‘Y’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Y’로 표시하였다.  
 16) 원문은 다음과 같다. “畢業”是結束性動詞，三年表示動作結束後到說話時所經歷的時間。“學習”是持續性動詞，表示三年前開始學習，說話時仍在學習。

수 있다. 즉, (17)은 ‘業’를 ‘畢’한 상황이 ‘了1’을 통해 일단락되고, ‘了2’를 통해 발화 시점에서 볼 때 화자의 사건시의 상황 판단이 3년이라는 양태적 의미로 설명할 수 있으며, (18)은 ‘學習’한 상황이 ‘了1’을 통해 일단락되고, ‘了2’를 통해 발화 시점에서 볼 때 화자의 사건시의 상황 판단이 3년이라는 양태적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성사상’은 새로운 동작의 시작을 담보로 동작이 일단락된 것이므로 (17)은 일단락되어 아직 새로운 동작의 시작이 출현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18)은 같은 동작의 계속적인 출현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7)과 (18)은 동사의 의미적 특징과 상관없이 ‘성사상’으로 일반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도 현대중국어의 ‘了1’은 여전히 한국어의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었-’으로 대당함을 알 수 있다.

- (19) 昨天我已經買了鋼筆了, 不去商店了。(劉月華 등1983:212)  
 (어제 난 이미 만년필을 샀으니 상점에 안 가.)
- (20) 這種書我買了一本了, 不再買了。(동작의 진행이 더 이상 없음 [動作不再進行].)(劉月華 등1983:221)(이런 종류의 책은 난 한 권 샀으니 더 이상 사지 않을래.)
- (21) 你到哪兒去了? 我找了你半天了。(동작의 진행이 더 이상 없음 [動作不再進行].)(劉月華 등1983:221)(너 어디 갔었니? 난 한참 동안 널 찾았어.)

(19)-(21)은 모두 ‘X+了+Y+了’ 구조에서 핵심 술어의 동작이 끝났음을 나타내고 있다. 劉月華 등(1983)은 모두 동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22)-(26)에서는 똑같은 ‘X+了+Y+了’ 구조이지만 동작이 더 진행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2) 圖書館買了三十本字典了。(더 사야 함[還要買].)(劉月華 등 1983:220) (도서관에서는 자전 30권을 샀다.)
- (23) 我買了伍個筆記本了, (두 권만 더 사면 충분함[再買兩個就夠了].)(劉月華 등1983:225)(나는 공책 5권을 샀는데 두 권만 더 사면 된다.)

- (24) 他睡了兩個小時了, (일어나야 함[該起來了]).(劉月華 등 1983: 225)(그는 두 시간 동안 잤으니 일어나야 한다.)
- (25) 我們聽了三天報告了。(계속하여 더 들을 것임[還要繼續聽]).(劉月華 등1983:220)(우리는 3일 동안 보고를 들었다.)
- (26) 阿李學了兩年漢語了。(계속하여 더 배울 것임[還要繼續學]).(劉月華 등1983:220)(阿李는 중국어를 2년 배웠다.)

(19)-(26)의 ‘了1’을 ‘성사상’으로 규정한다면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즉, (19)-(20)은 ‘了1’에 의해 ‘買’라는 동작이 일단락되었지만, ‘了2’에 의해 발화시 화자의 양태적 의미를 추가하고 있으며 그 뒤에 오는 ‘不去商店了’와 ‘不再買了’가 담보된 새로운 동작의 시작을 계속하지 않고 끝맺게 하고 있다. (21)은 앞에 오는 “你到哪兒去了?”가 찾던 사람을 이미 만나서 말하는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我找了半天了”에서 ‘找’의 동작이 더 계속되지 않고 일단락에서 끝맺음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상에서 현대중국어 ‘了1’은 ‘완성상’의 하위범주 ‘성사상’으로 ‘一段落’의 의미를 후속 동작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뒤에 오는 ‘了2’와 함께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그 가능성이 다른 동작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동작에서 마무리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了1’에 대한 한국어는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었-’으로 대당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了2’가 출현하여 문장이 끝나지 않고 ‘-으니’, ‘-는데’ 등으로 번역되는 점이 앞의 경우와 다르다. ‘-으니’, ‘-는데’는 ‘이유’, ‘원인’, ‘배경’ 등의 의미 범주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표지로, 중국어의 ‘了1’, ‘了2’가 정보전달의 완성도가 열려 있어 문장이 끝나지 않았을 때 추가되는 한국어의 연결어미 요소이다.

#### IV. ‘X+了+X’ 관련 구조 및 了 의미소 대조 분석

##### 1. ‘X+了…X’ 관련 구조 및 了 의미소 대조 분석

‘X+了…X’는 ‘了’를 중심으로 앞뒤에 서로 다른 술어가 출현하는 구조

로 일반적으로 ‘了’ 뒤에 다른 언어 요소가 추가되기도 한다.

- (27) 明天我們吃了吾飯再去電影吧。(내일 우리 점심 먹고 나서 영화 보러 가자.)
- (28) 今天我吃了吾飯就去找你。(나 오늘 점심 먹고 너한테 갈게.)
- (29) 人家說了再做, 我是做了再說。(CCL)(남들은 말하고 나서 실행하겠지만, 나는 실행하고 나서 말한다. / 남들은 말로 하겠지만 나는 행동으로 말한다.)
- (30) 既然這麼想奶奶, 怎麼三年多了才回來!(CCL)(할머니를 이토록 그리워했으면서 어떻게 3년이 훨씬 지나서야 돌아왔니!)

(27)은 ‘吃’, ‘去’, ‘看’의 동작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두뇌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了’가 ‘먹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吃’ 뒤에 오면서 또 이 동작의 시제는 ‘明天’이라는 미래시제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了’는 과제시제에 한정되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현재 모두 사용되므로 현대중국어의 ‘了’는 기본적으로 ‘시제’와는 별개임을 알 수 있다. (27)-(30)을 통해서 ‘了’ 뒤에 ‘再’, ‘就’, ‘才’ 등과 같은 부사가 오고 다시 다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옴을 알 수 있다. 이것도 또한 현대중국어의 ‘了’는 한 동작의 일단락을 나타내는 ‘성사상’임을 증명하면서, ‘일단락’의 ‘성사상’은 후속 동작의 기대치를 담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再’, ‘就’, ‘才’가 와서 후속 동작을 연결해 주고 있는 점을 설명해주고 있다. ‘X+了…X<sub>i</sub>’ 구조의 ‘了’는 한국어로 ‘-고 나서’, ‘-나서야’, ‘-고’, ‘-아서/-어서’ 등으로 번역된다. 이런 ‘-고 나서’, ‘-나서야’, ‘-고’, ‘-아서/-어서’는 한국어에서 의미 범주인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표지이다. 이런 경우 한국어로는 내용상 과거시제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과거시제 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래 예를 보자.

- (31) 그녀는 밥을 먹고 학교로 갔다.
- (32) \*그녀는 밥을 먹었고 학교로 갔다.
- (33) 그녀는 학교로 가선 밥을 먹었다.
- (34) \*그녀는 학교로 갔선 밥을 먹었다.

(31)-(34) 모두 과거시제를 표현하는 내용이지만 (32)는 ‘먹었고’ 때문에 비문이 되고, (34)는 ‘가’가 과거시제인 ‘갔-’으로 쓰였기 때문에 비문이 되었다. 이것은 주어와 술어가 하나인 단문이기 때문이다. 즉, 단문에서는 술어의 시제가 두 개 이상 나타날 수 없다. (31)과 (32)의 술어는 ‘가다’이며, (33)과 (34)의 술어는 ‘먹다’이므로 여기에 시제가 사용되어야 하며, 그 앞에 오는 요소는 뒤의 술어의 의미를 보완해주는 연결어미이다. 이런 경우 현대중국어에서는 ‘了’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了’가 중국어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완성상’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술어의 의미를 보완해주는 연결 기능을 겸할 수 있기 때문이다.

(35) 그녀는 밥을 먹었고, 그는 학교로 갔다.

(35)는 주어와 술어가 각각 두 개씩 출현하여 두 개의 절로 구성된 통사구조이다. 그러므로 (35)에서는 ‘먹-었-고’와 ‘가-갔-다’가 이루어져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 2. ‘X<sub>i</sub>+了+X<sub>j</sub>’ 관련 구조 및 了 의미소 대조 분석

‘X<sub>i</sub>+了+X<sub>j</sub>’는 ‘了’를 중심으로 앞뒤에 같은 술어가 출현하는 구조이다.

- (36) 我跑到堂屋找了點芝麻吃了吃, 果然胃不疼了。(CCL)(나는 집안으로 달려가 깨를 좀 찾아서 먹어보니 과연 위가 아프지 않았다.)  
 (37) 他把手中的一張紙就着燈光吃力地看了看。(CCL)(그는 손 안의 종이를 등불 가까이 가져가 힘들게 살펴보았다.)  
 (38) 父親回頭看了看, 喝了一口啤酒, 又再次回頭看了看。(CCL)(아버지는 머리를 돌려 살펴보고는 맥주를 한 입 마시고 또 다시 머리를 돌려 살펴보았다.)  
 (39) 媽媽吃驚地看看我, 又朝櫃子上的糖果罐看了看。(CCL)(어머니는 놀라면서 나를 보고서는 또 장롱 위의 과자 상자를 살펴보았다.)

(36)-(39)는 구분동작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의미 자질을 가진 동사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런 구분동작은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동사가 반복하여 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반복되는 같은 동사 사이에 ‘了’가 출현하고 있다. 이것을 통사구조상으로 설명하면 ‘구분동작+완성상+구분동작’으로 ‘시도’의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구조의 한국어는 대체로 ‘-어 보다’<sup>17)</sup>로 번역된다. 국립국어원(2005:292)은 ‘의도·의지’의 하위 범주인 ‘시도’라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대중국어 ‘X<sub>i</sub>+了+X<sub>i</sub>’ 구조의 ‘了’는 한국어에서는 ‘시도’라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40) 他抬頭看了看記者，很爽快地就答應了。(CCL)(그는 머리를 들고 기자를 살펴보고는 매우 시원스럽게 답변하였다.)  
 (41) 江澤民看了看周圍，笑咪咪地站下了。(CCL)(江澤民은 주위를 둘러보고선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42) 我看了看錶，離8點還有14分鐘。(CCL)(내가 시계를 쳐다보니/살펴보니 8시에서 아직 14분이나 남아있었다.)  
 (43) 他看了看我打排球。(그는 내가 배구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44) \*他看了看我打了打排球。(그는 내가 배구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40)-(43)은 ‘X<sub>i</sub>+了+X<sub>i</sub>’에 다시 목적어가 추가된 구조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7)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조동사 ‘보다’에 대한 풀이는 다음과 같다. [II]「보조동사」1「((동사 뒤에서 ‘-어 보다’ 구성으로 쓰여)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말. 『먹어 보다 /입어 보다/말을 들어 보다/꿈꿈히 따져 보다』2「((동사 뒤에서 ‘-어 보다’ 구성으로 쓰여)이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음을 나타내는 말. 『이런 일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내 심정을 모른다/그런 책은 읽어 본 적이 없다/학생 중에는 불량배에게 맞아 본 아이가 많다.』3「((동사 뒤에서 ‘-고 보니’, ‘-고 보면’ 구성으로 쓰여)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 난 후에 뒷말이 뜻하는 사실을 새로 깨닫게 되거나, 뒷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 말. 『마구 때리고 보니 아무리 악인이지만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사람이란 몇십 년 살고 보면 감각이나 감성이 닳고 닳아 버려져서 아주 둔해지는 모양이다.《유치환, 나는 고독하지 않다》』4「((동사 뒤에서 ‘-다(가) 보니’, ‘-다(가) 보면’ 구성으로 쓰여)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뒷말이 뜻하는 사실을 새로 깨닫게 되거나, 뒷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 말.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좋은 일도 있네./일을 하다가 보면 요령이 생겨서 작업 속도가 빨라진다.



가지로 구분동작이 가능한 동사가 반복되어 그 사이에 ‘了’가 출현하고 있다. 이것은 ‘구분동작+완성상+구분동작’으로 동작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는 것도 아니며 두 번만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그 중간에 ‘완성상’이 오면서 그 동작이 ‘일단락’되고 다시 한 번 더 반복됨으로써 ‘살펴보다’, ‘둘러보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44)는 앞의 ‘看了看’이라는 반복되는 시도의 양태와 뒤에 오는 ‘打了’의 완성상이 서로 모순을 일으켜 비문 이 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X+了+X’ 구조에서 ‘了’는 ‘완성상’의 표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는 ‘X<sub>i</sub>+了+…X<sub>ij</sub>’의 경우는 양태 표지로서 ‘선후’의 의미소 ‘-아서/어서’, ‘-고 (나서)’를 나타내고, ‘X<sub>i</sub>+了+X<sub>i</sub>’의 경우는 양태 표지로서 ‘시도’의 ‘-어 보다’의 의미소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본고는 중국어 상(相) 표지 ‘了’ 관련 언어구조 중한 대조 분석을 통해 그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분석 과정에서 현대중국어에서 ‘了’가 사용된 구문이 통사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먼저 ‘X+了+Y’와 ‘X+了+X’ 구조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X+了+Y’, ‘X+了+Y+了’, ‘X<sub>i</sub>+了+…X<sub>j</sub>’, ‘X<sub>i</sub>+了+X<sub>i</sub>’ 구조로 세분하여 한국어 대당 구조를 대조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了 관련 구조	예문	중국어 의미 범주	중국어 표지	한국어 의미 범주	한국어 대응 표지
X+了+{Y}	他天還沒亮的時候就吃了飯 他吃了兩小時的飯	상 범주_완성 {종결}	X+了+Y°	시제범주_과거시제	-았(었)다.
	這本書我看了一天了	상 범주_완성 {일단락/종결}	X+了+Y+了°	시제범주_과거시제+(연결어미)	-았(었)다. -았(었)+는데…
X+了+X	既然這麼想奶奶，怎麼三年多了才回來！ 明天吃了飯再走	상 범주_완성 {일단락}	Xi+了+…Xj…°	양태 범주_선후	-고서(야)… -고 나서…
	我看了看錶，離八點還有十四分鐘	상 범주_완성 {일단락}	Xi+了+Xi…°	양태 범주_시도	-보고(는)… -어 보니…

중국어의 ‘了’ 관련 구문 중한 대조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어는 ‘了’라는 하나의 상 표지와 통사구조를 활용하고, 한국어는 시제 표지 선어말어미, 연결 어미, 양태를 표시하는 표지 등 다양한 어미를 활용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 체계가 다름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한국인과 중국인의 시간 개념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다름은 형식의 다름으로 구현되고 있다. 즉, 중국어는 중국어대로 시간 개념에 대한 상 체계, ‘了’의 의미소 특징 등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시간 개념에 대한 인식의 특징을 형성하고 있어서 두 언어 사이의 의미 범주, 상 표지 및 통사구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을 잘 대조시켜 한국인의 CSL 교육에 적용한다면 더 효율적인 중국어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 참고 문헌

- A. A 龍果夫, 『現代漢語語法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1958.  
 呂叔湘主編,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1980.  
 劉月華、潘文寤、故韡, 『實用現代漢語語法』,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1983/2001.  
 房玉清, 『實用漢語語法』(修訂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1.  
 胡裕樹、范曉, 『動詞研究綜述』, 太原, 山西高校聯合出版社, 1996.  
 胡裕樹、范曉, 『動詞研究』,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1995.  
 Bernard Comrie, 『Aspect』,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76.  
 Charles N. Li & Sandra A. Thompson,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1989.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체계 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2-용법 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인터넷).  
남기심·고영근,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1993.  
張皓得, 『『논어』와 함께 배우는 고대중국어문법』, 용인, 교학출판사, 2012.  
張皓得, 「現代中國語의 ‘沒’·‘有’ 및 相(aspects)」, 『중국어문학』35집, 영남중국어문학회, 2000, pp.305-339.

❖ ABSTRACT

A Contrastive Analysis on Epistememe of Aspect Marker ‘le了’ and Related Syntactic Structures in Korean and Chinese

Chang, Ho-Deug

This article covers a contrastive analysis on Korean and Chinese linguistic structures with aspect marker ‘le了’.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le Related Syntactic Structures	examples	Semantic category of Chinese	Chinese Markers	Semantic category of Korean	Korean Markers
X+了+{Y}	他天還沒亮的時候就吃了飯。 他吃了兩小時的飯。	Aspect_[Perfective_{finish}]	X+了+Y。	Tense_[past]	-았(었)다.
	這本書我看了一天了。	Aspect_[Perfective_{wrap-up/finish}]	X+了+Y+了。	Tense_[past+(linking particle)]	-았(었)다. -았(었)+는데...
X+了+X	既然這麼想奶奶，怎麼三年多了才回來！ 明天吃了飯再走。	Aspect_[Perfective_{wrap-up}]	Xi+了...Xj...	Modality_[order]	-고서(아).. -고 나서...
	我看了看錶，離八點還有十四分鐘。	Aspect_[Perfective_{wrap-up}]	Xi+了+Xi...	Modality_[try]	-보고(는).. -어 보니...

Key Words

대조 분석, 상 표지, 통사 구조, 의미소, 의미 자질, 의미소, 了  
contrastive analysis, aspect marker, syntactic structures, epistememe, semantic features, epistememe, le了

논문접수일: 2013. 11. 10

심사완료일: 2013. 12. 06

게재확정일: 2013. 12. 12